일본어학습자를 위한 일본어 발음의 실천지도*
-VT법을 중심으로-

김영란**
kyr0814@hotmail.com

<目次>

1. 서론
2. VT법
   2.1 VTS란
   2.2 VT법을 이용한 발음지도방법
3. 선행연구
4. 본론
   4.1 학습자의 일본어 학습에 관한 의식 조사
   4.2 일본어 발음의 실천지도
5. 결론

主題語: 일본어발음지도(Japaness pronunciation), 의식조사(cognition survey), VT법(verbo-tanal system), 한국인일본어학습자(korean japanese learner), 신체리듬운동(body movements)

1. 서론

한국인 일본어학습자의 발화 중에는 문법과 어휘 등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말투에 위화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하나하나의 단어의 오류라기보다 프로소디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말하자면, /ツ/가 /チュ/가 되는 오류 등은 작은 문제이다. 자음·모음에 문제가 있어도 전체의 인토네이션이 자연스러우면 일본인 모어화자가 들었을 때 평가가 높다고 보고되어 있다.(사토우 1995:89)

언어습득에 있어 발음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학습항목이다. 또, 모어간섭에 의한 오류가 가장 일어나기 쉬운 항목이기 때문에 습득에 가장 긴 시간을 요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본어 교육현장에서는 문법·회화·한자 등의 발음이외의 교육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지지만 발음교육에 있어서는 학습자의 관심·지도방법·학습시간의 부족 등의 이유로 발음교육이 행해지지 않은 것이 현재의 상황이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5900)
** 동명대학교 일본학과 강사

라 생각된다. 또한 지금까지의 일본어 발음에 대한 연구는 발음오류에 대한 경향분석이 많았다.

본고는 일본어 학습자의 의식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항목을 조사하여 그에 알맞은 지도법을 제안하고 실천지도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천지도에서는 VT법을 이용하여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곤란하게 느끼고 있는 발음항목에 관해서 일본어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발음지도법을 고안하고자 한다.

2. VT법

2.1 VTS란?

언조청각론(言調聴覚論, Verbo-Tonal System)의 약자로, 인간의 뇌가 음성언어를 어떻게 듣고, 생성하는가, 청각기능과 그 원리, 또는 거기에 존재하는 법칙성은 무엇인가 등에 의해서 기술한 언어원리로 1950년대 자르레브대학의 베탈 구베루나 박사에 의해 제창되었다. VT법은 언조청각론을 기초로 한 발음지도법으로 음성언어를 언어 외 요소(장면, 상황, 몸짓, 표정, 정서)를 포함한 전체구조로서 포착한다. 그리고 지각을 커뮤니케이션 연사(発出一伝送一知覚一再生)의 기본환경으로 설정한다. VTS에는 두 가지의 응용분야가 있는데 하나는 언조청각법(言調聴覚法、Verbo-Tonal Method)으로, VT법, ヴェルボトナル･メソッド라고 불리며, 청각･언어장애아(자)및 외국어학습자의 발음지도, 교정, 그리고 보청기의 피팅(주파수를 조정하는것)등으로 응용되고 있다. 또 하나는 전체구조청각교수법(全体構造聴覚教授法)으로 SGAV 교수법이라 불리며, 주로 외국어교수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VT법은 음성의 청취･생성을 마이크로(micro)의 레벨, 즉 조음기관, 청각기관으로 취급하지 않고 신체전체를 움직이게 함과 동시에 청각뿐 아니라, 시각, 촉각(진동감각)등의 감각에도 개입하여 발음지도･교정을 전체구조적으로 취급하는 점이 기존의 발음지도법[1]과 크게 다른 점이라 볼 수 있다.

---

1) 기존의 발음지도법으로는 모방반복법, 제시음의 음량･속도를 바꾸는 방법, 대조연습, 시각적 접근, 조음점･조음양식을 설명하는 방법, 촉각을 이용한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2.2 VT법을 이용한 발음지도방법

2.2.1 와라베우타 리듬(わらべ歌リズム)

와라베우타 리듬은 음악적자극이라고 불리며 와라베우타 리듬을 이용하여 프로소디·단음을 습득시키기 위한 음악적 음성지도기술이다. 와라베우타는 리듬·인토네이션·음소·음성상의 긴장성·시간·강도 등의 음성요소가 포함되어져 있다. 또, 같은 리듬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패턴이 많고 듣고 난 후 기억이 쉽고 간단하게 복창할 수 있다. 와라베우타 리듬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승와라베우타(伝承わらべ歌)'를 이용한 것과 전승와라베우타에서는 보충할 수 없는 음성요소를 최적한 리듬에 맞춰 작성한 '창작와라베우타(創作わらべ歌)'가 있다.

2.2.2 신체리듬운동

언어음의 음성적 특징과 신체의 움직임 요소를 관련시켜 만들어진 음성지도법이다. 의식적으로 신체전체를 움직이게 하면 신체의 국소(본래의 조음기관)가 움직인다는 현상을 이용하여, 조음 때에 있어서 조음기관 및 신체의 긴장·유연이 지도의 열쇠가 되는 것이다. 학습자의 의식을 조음기관이 아니라, 신체의 움직임에 맞게 올바른 발음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운동의 분석은 루돌프·라반(Rudolf von Laban,1975)의 「운동의 8개의 효과[2)]」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2.2.3 SUVAG기기에 의한 청취지도

VTS의 원리에 입각하여 제작되어진 음성청취훈련 기기를 SUVAG(Système Universel d'Audition Guberina)라고 부른다. 다양한 전자음향필터를 내장되어있어 있다. 여기서는 듣기지도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필터에 대해서 알아본다.

重力	空間	時間	運動の例
強	直接	急	打つ：片手で机をはたく
強	直接	緩	押す：両手で重い荷車を押す
弱	直接	急	つつく：ワープロのキーを軽やかに叩く
弱	直接	緩	滑る：スケートで氷上を直線的に滑る
強	間接	急	むち打つ：すくい上げるような形で鞭を打つ
強	間接	緩	絞る：雑巾を両手で固く絞る
弱	間接	急	弾く：手に水を付けて振り払う
弱	間接	緩	浮く：浮き袋を波間を漂うように動く

2) 이 방법은 다음의 3개의 요소(중력, 공간, 시간)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각의 요소의 특징을 조합하여 움직임의 성질을 파악한다. (VTS入門 p.70 <表1 >ルドルフ・ラバンの「運動の8つのエフォート」)

1) 로패스 필터(low-pass filter)[3]

음성언어를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주파수로부터 특정 주파수보다도 낮은 주파수대역을 통과시키는 필터이다. 낮은 주파수대역은 리듬·인토네이션을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리듬이나 인토네이션을 학습할 때 사용한다. 진동기를 겸용하면 더욱 더 효과적이다.

2) 하이패스 필터(high-pass filter)

음성언어에 포함하고 있는 주파수로부터 특정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대역을 통과시키는 필터이다. 높은 주파수대역은 모음의 일부나 장음의 분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패스필터는 음성언어의 명료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2.2.4 진동기의 활용

음성을 진동으로서 지각된다는 생각을 근거로 하여, 음성을 기계적인 진동에 변환하고 청취·생성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진 것이 진동 및 진동기이다. 통상은 손에 가지고 진동을 느껴 그것을 피드백시켜 음성청취훈련에 도움이 되게 한다. 일본어의 촉음, 장음의 지도에 이용한다.

3. 선행연구

일본어교육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어학습자의 발음교육에의 니즈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어교육현장의 지도자는 '학습자의 발음상의 문제점을 인식하지만 지도법을 모르기 때문에 발음지도를 할 수 없다'라는 보고도 있다. 그리고 다니구치(谷口 2000:15)의 설문지조사에서도 일본어교육현장에서의 발음교육은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 프로소디(prosody)에 관한 발음교육은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위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발음지도의 늦음이 지적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일본어 발음에 관한 연구는 경향분석 또는 오류분석에 관한 연구들로 많이

3) 음성 및 300Hz이하의 저주파수만을 통과시켜, 그 이상의 높은 주파수지역은 잘라내는 필터, 300Hz이하의 주파수부분만을 들어보면 단음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 프로소디 요소만이 남고 <음음음음, 부부부부>라는 불명확한 저음소리로 개별음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 결국, 리듬·악센트 등의 프로소디만이 두드러지게 들리게 되는 것이다. 또, 다이렉트음을 듣고 나서 계속해서 같은 음을 로패스 필터음으로 들어보면 들릴 리가 없는 단음까지 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청각이 재구조화(再構造化)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전자음향필터사용은 청각이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모어나 잔재청력(殘存聽力)에 결정되어진 음성청취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한국인 일본어학습자들에게는 발음상에 문제가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어 발음지도의 시급함을 요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처하는 지도법에 관한 연구가 적은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논문들은 발음지도법에 대해 제안만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천지도까지 연결되는 논문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VT법 관련 논문에서는 실천지도를 통해 그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을 찾을 수가 있었다. 오오타(太田 2003:82)는 중국인 일본어학습자에게 VT법을 이용해서 일본어 발음지도를 한 결과, 촉음의 지속시간의 부족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또, 강(2009:82)은 한국인 일본어학습자에게 VT법을 이용해 촉음의 지도를 한 결과 종래의 발음지도(ミムメム法、제시되어진 음을 듣고 따라하는 모방 반복법)보다 선행자음의 지속시간을 정확하게 가지는 것이 가능했고, 오류가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다.

이어 최(2010:35)는 일본어학습자의 리듬감각과 그 습득연구로, 리듬의 오류의 원인분석으로서 VT법을 참고해 리듬에 있어서 긴장의 배치특징을 명확하게 했다. 그 결과를 통해 발음의 교정·지도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지도법을 제안했다고 했다.

기무라(木村 2010:18)는 음악적자극(와라베우타리듬)과 신체리듬운동을 활용하여 두고형 악센트지도를 한 결과, 도입단계에서는 움직임이 어색하고 발음과 움직임이 조화롭지 않고 따로따로라는 느낌이었지만 3회째의 연습부터 움직임과 발음이 조화롭게 되어 점차적으로 두고형 악센트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에 기무라(木村1987, 1992, 1997, 2000, 2001), 가와구치(川口1987), 사이토(斎藤1997), 마쓰다(松田2005), 아사노(浅野2008) 등 VT법을 통한 지도를 통해 발음교정 및 지도에 효과를 보았다고 보고하였다.

4. 본론

4.1 학습자의 일본어 학습에 관한 의식 조사[4)]

본고에서는 VT법의 실천지도에 앞서 일본어발음 및 발음학습에 관해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 대전, 부산 소재의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일본어 전공 학습자 193명을 대상으로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PASW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4) 필자의 2013「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어 발음교육에 대한 의식」『일본문화연구』제 47집을 인용, 자세한 내용은 논문 참조바람.

특성과 각 질문에 대한 빈도 및 점수에 대해 통계분석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습자에 대한 기초자료인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다.

학습자의 성별은 남자 67명, 여자 126명, 일본어 학습기간은 1년 이하가 41명, 1년~2년 23명, 2년 이상 34명 3년 이상 95명, 일본어 능력별로 살펴보면 초급학습자 69명, 중급학습자 63명, 고급학습자 61명이다. 총 193명을 대상으로 일본어 발음학습에 대한 의식조사를 하였다.

4.1.1 발음학습의 필요성[5)]

발음 학습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일본어발음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묻고 발음 학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음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조사대상자(이하 일본어 학습자 또는 학습자라 칭함) 193명 중 '필요 있다' 170명(88.1%), '필요 없다' 22명(11.4%) 차지했다. 이와 같은 결과 일본어 발음 교육은 일본어 학습자에 매우 필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어 능력별에 따른 발음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초급학습자의 경우 74%, 중급학습자 92%, 고급학습자 100%가 일본어 발음 학습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일본어 능력이 올라감에 발음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2 발음학습이 필요한 이유

4.1.1의 '일본어 발음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70명의 일본어 학습자에게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그 이유로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위해서'가 76명(39.4%)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 중에는 원활한 의사소통, 정확하고 완벽하게 일본인과의 회화를 위해 일본어 발음 수업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두 번째로는 '발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발음수업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한 일본어학습자는 45명(23.3%)이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일본인처럼 일본어를 구사하고 싶다'라고 답한 경우가 25명(13%)이었다. 일본인의 발음에 가까워지기 위해 일본인답게 말하기 위해 발음수업의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네 번째 이유로는 '오해를 막기 위해'라고 12명(6.2%)이 대답했다. 일본어학습자 중에는 일본인과의 대화 중 잘못된 발음으로 일본인이 잘못 알아들은 경우가 많아 불편함을 느끼거나, 실제로 일본에 가서 발음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답하였다.

다섯 째 이유로는 '혼자 학습하기 어렵다'가 10명(5.2%)으로 문법, 독해와 같은 경우는 학교

---

5) 각 설문지에 대한 응답은 복수선택 및 자유롭게 서술형으로 기술하도록 하여 총 조사대상자 193명의 수치와 맞지 않을 수 있음.

수업, 교재 등이 많아서 자가 학습도 가능하지만 발음의 경우는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점이 많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20명(10.3%)으로 기타항목에서는 '영어도 발음수업이 있으니까',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이 있기 때문에', '듣기실력의 향상을 위해', '작문, 문법 수업에 치우쳐 발음에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언어습득을 위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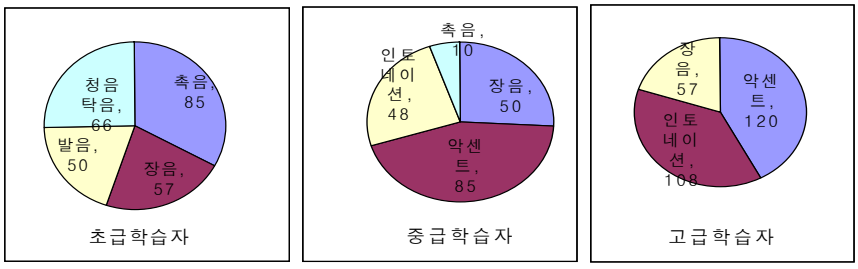
4.1.3 자신의 발음에 신경쓰인 적이 있는가

'자신의 일본의 발음에 대해 신경 쓰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총 193명 중 150명(77.7%)의 학습자가 자신의 발음에 신경이 쓰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43명(22.3%)의 학습자가 신경 쓰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일본어 능력별로 살펴보면 초급학습자의 경우 57%, 중급학습자 79%, 고급학습자 100%가 일본어 발음이 '신경쓰인다' 혹은 '신경 쓰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일본어 능력이 고급학습자일수록 자신의 발음에 신경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1.4 일본어 능력별 신경 쓰이는 항목 혹은 어려운 발음 항목

4.1.3의 '자신의 일본어 발음에 신경이 쓰인다'고 답한 150명을 대상으로 어떠한 영역이 신경이 쓰이는지 혹은 어려운 발음 항목을 일본어 능력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급학습자의 경우 '촉음 85명', '청음·탁음 66명', '장음 57명', '발음 50명'이 어렵다고 답하였다. 반면 중급학습자의 경우는 '악센트 85명', '장음 50명', '인토네이션 48명', '촉음 10명', 고급학습자의 경우는 '악센트 120명', '인토네이션 108명', '장음 57명'로 초급학습자와 중급학습자, 고급학습자의 어려운 발음 항목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급학습자의 경우 청음・탁음, 발음, 촉음, 장음의 단음에 중·고급학습자의 경우 악센트, 인토네이션, 장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고급학습자일수록 일본어의 유창성과 관계있는 프로소디(prosody)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일본어 능력별 신경쓰이는 항목 및 어려운 발음 항목(단위:명)

4.2 일본어 발음의 실천지도

앞의 4.1의 학습자의 일본어 학습에 관한 의식 조사를 통해 90%에 가까운 학습자가 발음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어 능력별로 일본어 학습자 자신이 어렵게 느껴지는 발음 항목 및 신경쓰이는 항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VT법을 이용한 각 항목별 발음지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4.2.1 일본어의 박(拍)과 리듬감각

일본어 학습자의 발음교육에 관해서 '日本語らしさ'를 담당하는 음성요소인 리듬, 인토네이션, 악센트의 지도 및 교정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유아의 언어습득이 리듬, 인토네이션의 습득부터 시작되는 것을 생각하면 인간의 생리적 범위라고 할 수 있는 리듬, 인토네이션의 지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어 발음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일본어의 박과 리듬 감각을 익혀 올바른 발음학습이 되도록 한다.

먼저 학습자에게 박(拍)의 개념에 대해 설명[6]하고 단어를 제시하여 몇 박인지 세워보게 한다.

예)

단어	てんぷら	ラーメン	なっとう	きょか	かんじ	りょこう
박수	4박	4박	4박	2박	3박	3박

그리고 박에 신경을 쓰면서 학습자에게 발음을 하게 한다. 올바른 발음이 되지 않을 경우 VT법의 신체리듬운동을 이용하여 지도한다.

예를 들어 4박의 'てんぷら(タンタタ)'가 'てぷら(タタタ)'처럼 3박으로 발음하는 경우, 손가락을 이용하여 박의 수만큼 세워보면서 발음하도록 한다.

6) 일본어의 음의 길이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 같은 의미로 모라(mora,モーラ)라고도 함. 장음, 촉음, 발음(撥音)도 1박의 길이로 발음한다. 장음은 「おかあさん」「ビ-ル」처럼 길게 내는 소리, 촉음은 「きって」「カップ」의 「っ」, 발음은 「ほん」「ホンコン」의 「ん」의 소리다. 요음은 히라가나 2개이지만 1박이다.

<박의 신체리듬운동의 예>

마지막으로 대조연습을 통해 박수가 틀리지 않게 발음하게 한다.

예를 들어 ひやく(飛躍) / ひゃく(百)　　りよう(利用) / りょう(寮)
　　タタタ　　タタ　　タタタ　　タタ

이와 같이 박을 한 개 한 개 나누어서 지도하는 방법의 좋은 점은 아직 '박'에 대해서 모르는 학습자에게 일본어의 음의 길이를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어의 긴 모음과 짧은 모음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つ'는 어떻게 발음하면 좋은가' 라는 레벨의 학습자에게는 박을 한 개 한 개 지도하면서 발음연습을 함으로써 일본어의 음과 박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대로 박을 한 개 한 개로 구별해서 발음하면 부자연스럽게 되어버릴 우려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こんにちは'의 연습에 'こ' 'ん' 'に' 'ち' 'は' 처럼 박을 구별해서 발음하면, 'こんにちは'가 'こにちは'가 되는 학습자에게 'ん'의 발음을 설명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こんにちは'를 자연스럽게 발음하고 싶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또, 단어레벨이 아니라 중급이상의 학습자 등에서 '긴 문장을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발음하고 싶다. 그 중에서 박에도 주의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도 박을 한 개 한 개 구별해서 연습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학습자들에게는 일본어 발음에서 가장 기본단위인 박의 감각을 익히게 한 다음 일본어의 리듬의 단위 규칙[7]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일본어 리듬 단위에는 짧은 단위와 긴 단위가 있다. 1)짧은 단위는 1박, 긴 단위는 2박의 길이로 장음, 발음, 촉음, 모음의 연속(ai,oi 등의 연모음)이 되면 긴 단위가 된다. 본고에서는 짧은 단위는 'タ', 긴 단위는 'タン'으로 표시한다. 2) 짧은 단위가 두 개 연결되면 한 개의 그룹처럼 발음하며 'タン'으로 표시하고, 3) 'です', 'ます'도 한 개의 그룹처럼 발음하며 'タン'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4) 남은 박은 1박으로 하며 'タ'로 표시한다.
> 즉, 'タン'의 리듬은 한 박자로, 'タ'는 반(半)박자로 발음한다.

7) 磯村 一弘(2009)『音声を教える』国際際交流基金, p.77

예를 들어,

おは丨よう　　タンタン
こん丨にち丨は　　タンタンタ
おつ丨かれ丨さま　　タンタンタン
ちゅう丨ごく丨じん丨です。　タンタンタンタン
すみ丨ま丨せん　　タンタタン

일본어 리듬 감각에 맞춰 발음지도를 하면 학습자가 좀 더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문의 리듬 감각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대화문을 통해 문장연습을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　　] 안에 여러 단어를 사용하여 학습자에게 연습하도록 한다.
(연습항목 : バイトータンタ / かいものータンタ / ごはんータタン / カラオケータタ　등)

A: おはよう。いまから[じゅぎょう]?
タンタン　タンタン タ タン
B: うん、いまから [じゅぎょう]。
タン　タンタン　　タ　タン

이와 같이 일본어의 리듬 규칙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조금 긴 문장의 경우도 규칙에 맞추어 연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 ① とうきょうときょうととおおさかにいきました。(東京と京都と大阪に行きました。)
とう丨きょう丨と丨きょう丨とと丨おお丨さか丨に丨いき丨まし丨た。
タン　タン　タ　タン　タン　タン　タン　タ　タン　タン　タ
② はじめまして。キムともうします。
かんこくからまいりました。
どうぞよそしくおねがいいたします。

はじ丨め丨まし丨て。　　キム丨と丨もう丨し丨ます。
タン　タ　タン　タ　　タン　タ　タン　タ　タン
かん丨こく丨から丨まい丨り丨まし丨た。
タン　タン　タン　タン　タ　タン　タ
どう丨ぞ丨よそ丨しく丨おね丨がい丨いた丨し丨ます。
タン　タ　タン　タン　タン　タン　タン　タ　　タン

일본어의 리듬을 손뼉을 치면서 발음하는 것은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나 몇 번씩 반복해서 몸에서 익숙해지면 점점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또 일본어의 단어나 문장을 보면 어떤 리듬으로 발음하면 좋을 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어의 리듬규칙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운 일본어의 리듬으로 발음할 수 있게 되고 음의 길이의 구별의 문제도 개선될 것이라 본다.

다음은 항목별로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항목에 대해 VT법을 이용한 지도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4.2.2 촉음, 장음, 발음(撥音)

초급학습자들의 어려운 항목 및 신경쓰이는 항목에 속하는 '촉음, 장음, 발음(撥音)'의 지도에서는 VT법의 와라베우타리듬과 신체리듬운동을 통하여 실천지도를 고안한다.

1) 촉음

촉음은 초급학습자들이 어려워하거나 신경쓰이는 항목 중의 하나이다. 먼저 촉음의 오류현상[8])을 살펴보면 촉음의 탈락, 불필요한 곳의 삽입 등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うたったの 경우 → うたた、うったた、うったった

이와 같은 오류를 없애기 위해 VT법의 신체리듬운동과 와라베우타리듬을 통해 촉음지도 방법을 제안하고 한다.

촉음의 신체리듬운동방법으로는 아래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촉음 부분을 주먹을 쥐듯이 위로 또는 아래로 꺽어서 약간의 긴장감을 주는 방법과 왼쪽의 '}' '·'의 모양을 손가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촉음이 있는 부분은 약간 뾰족한 모양(}))으로 꼬집듯이 촉음이 없는 부분은 점(·)찍듯이 발음을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촉음이 없는 부분은 박수와 관계없이 점 한 개로 연결하여 발음 연습을 한다.

<촉음의 신체리듬운동의 예>

タ	ッ	タ
うた	っ	た
き	っ	さてん
	}	·

8) 각 항목별 오류에 관한 내용은 2013년 3월~2014년 5월까지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학습자가 신체리듬운동을 통해 촉음이 익숙해지면 아래의 연습패턴을 통해 여러 가지 형태의 촉음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촉음의 연습패턴>
タッタ：もっと、ちょっと
タッター：がっこう
タッタタ(タン)：そっくり、がっかり、けっこん
タタッタ：こまった(困った)、ちょびっと、ロボット
タッタタッタ：ホットドック
タッタタタ：しっている、きっている
タッタタン：きっさてん、カップめん、みっかかん

<촉음의 창작 와라베우라[9]의 예>
1) うたった　うたった　うたったよ #
うたった　カラオケ　うたったよ #
作文: きのう　カラオケで　うたったよ。

2) きっさてん#きっさてん#
かのじょと　えきまえ　きっさてん#
作文：かのじょと　えきまえの　きっさてんに　行きました。

3) 郵便局へ行って、切手買って貼って出してって。

1)은 기본리듬을 중심으로 만든 창작와라베우타리듬의 예이다. 기본적으로 4박의 어구를 선택하여 4박의 어구를 반복하게 하여 4-4-5-#(휴식)처럼 리듬그룹의 끊어지는 곳을 확인시켜 리듬감각을 정착시키면서 지도를 한다. 그리고 각 행의 최종문절에도 목표음을 두어 기억정착을 유도한다. ‘うたった’의 정확한 발음이 정착이 되면 와라베우타리듬에서 사용한 단어를

9) 창작와라베우타 만드는 방법
① 指導すべき音声を聴取、生成に適したリズム(テンポ)を選ぶ
② 基本的に 4 拍語句を選ぶ
③ 間をおいてリズムグループを確認する
④ 各行の最終文節にも目標音をおく
⑤ リズム指導では無意味音節を用いると効果的である
⑥ 学習状況により変則リズムも活用し、話しことばのレベルに近づける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본다. 예를 들어, ‘きのう　カラオケで　うたったよ。’로 연습하여 단음중심이 아니라 문장 안에서도 촉음의 발음연습이 가능하도록 도모한다. 2) 3)의 경우는 4-4-5-#(휴식)의 기본어구에서 벗어나 같은 리듬의 어구를 사용하여 회화체에 가까운 레벨에 접근할 수 있는 응용 창작와라베우타리듬의 예이다.

촉음의 연습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촉음과 촉음이 없는 단어를 이용하여 대조연습을 한다. 대조연습을 통해 그 차이를 학습자들에게 인지하도록 한다.

<촉음의 대조연습의 예>
さか(坂) / さっか(作家), おと(音) / おっと(夫), もと(元) / もっと　등

위의 대조연습에서 학습한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연습을 통해 한번 더 확인해보도록 한다.

<촉음의 문장연습의 예>
A：あの、さっかってなに？
B：え、さか？ さっか？
A：さっかなんだけど。
B：あ、さかね。
A：ううん。さかじゃなくてさっか。
B：ごめんごめん。さっかだね。

2) 장음

장음은 초급학습자 뿐만 아니라 중급학습자에게 있어서도 어려운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어 장음에서 학습자의 오류현상을 보면 아래의 예와 같이 장음의 탈락과 불필요한 곳의 장음의 삽입 등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コーヒー　→ コーヒ, コヒー, コヒ
　　デパート　→ デパト, デーパト, デーパート

신체리듬운동을 이용한 장음의 지도 방법은 손가락이나 팔을 이용하여 길게 늘어뜨리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고 장음이 없는 단음의 경우는 손뼉을 가볍게 치거나 손가락을 손바닥에 짧게 치는 방법을 이용한다.

<장음의 신체리듬운동의 예>

ターター	タター
コーヒー	ギター
→[10] →	• →

<장음의 연습패턴>

タター：ギター、りょこう(旅行)
ターター：コーヒー、まあまあ
タータ：ニュース、こうぎ(講義)
タータタ：ようふく(洋服)、せいせき(成績)
タターター：デパート、どようび(土曜日)
タタターター：にちようび(日曜日)、ユニフォーム
ターターターター：ゆうびんきょく(郵便局)、とうきょうえき(東京駅)

<장음의 창작와라베우타리듬의 예>

コーヒー　まいあさ　コーヒーよ#
コーヒー　おいしい　コーヒーだ#
作文)毎朝　飲む　コーヒーは　おいしいです。

와라베우타리듬과 신체리듬운동을 사용하여 장음연습을 병행한다면 더욱 더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본다.

장음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장음이 있는 단어와 장음이 없는 단어로 대조연습 및 문장연습을 하여 본다.

<장음의 대조연습의 예>

ビル / ビ-ル,　ちず / チーズ、　さっか / サッカー　등

위의 대조연습에서 학습한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연습을 통해 한번 더 확인해보도록 한다.

<장음의 문장연습의 예>

A：あの、ビールなんですけど
B：え、ビルですか、ビールですか。

10) 화살표 방향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발음한다.

A：ビールです
B：あ、ビルですね。
A：いいえ、ビルじゃなくてビールです。
B：すみません。ビールですね。
A：日本のビールっておいしいですね。
B：そうですよね / そうですか。

3) 발음(撥音)

발음(撥音)은 ‘にほん’ ‘かんこく(韓国)’의 ‘ん’의 소리이다. 발음(撥音)이 있으면 긴 단위가 된다. 그러나 학습자의 오류현상을 보면 아래와 같이 ‘ん’의 탈락현상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きんえん(禁煙) 의 경우→ きえん、きんえ

발음의 신체리듬운동은 ‘ん’의 부분을 원을 그리듯이 ‘ん’이 없는 단음은 앞의 촉음과 장음처럼 손가락을 손바닥에 짧게 치는 방법을 이용한다.

<발음의 신체리듬운동의 예>

タ タ ン	タ ン タ ン
ご は ん	き ん え ん
• ↺	↺ ↺

<발음의 연습패턴>

タタン：じしん(地震)、ごはん
タンタ：そんな、どんな
タンタン：ぜんぜん、しんぱい(心配)
タタタン：どくしん(独身)
タタンタ：フランス、オレンジ
タンタータ：しんせいしょ(申請書)、せんぷうき(扇風機)
タタタタタン：けいさつかん(警察官)
タンタンタン：カーネーション、しんかんせん(新幹線)

<발음의 창작 와라베우타리듬>

1) きんえん　あちこち　きんえんよ#
　きんえん　きをつけ　きんえんだ#
　作文)あちこち　禁煙だから　気を付けよう。

2) がんがん　あたまが　がんがんよ#
　じんじん　　むしばが　じんじんだ#
　作文)頭ががんがんだし、むし歯はじんじんだ

<발음의 대조연습의 예>

きねん(記念) / きんねん(近年)

<발음의 문장연습의 예>

A：きねんときんねん、発音がちがいますよね。
B：きねんはきねん、きんねんはきんねんですよ。
A：きねんはきねん、きんねんはきんねん、大丈夫ですか。
B：大丈夫ですよ。 / うん。ちょっと違いますね。

4.2.3 청음·탁음

청음과 탁음은 중·고급학습자에게는 어려운 항목에 속하지 않았지만 초급학습자에게 있어서 촉음, 장음, 발음(撥音)과 같이 신경쓰이는 항목 중의 하나이다. 먼저 청음·탁음의 학습자들의 오류현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음·탁음이 불필요한 곳에 삽입 또는 필요한 곳에 탈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くたくたの 경우 : くだくだ、ぐだぐだ

청음·탁음은 진동기 및 와라베우타리듬이 효과적이다. 본고에서는 와라베우타리듬을 지도에 이용하기로 한다.

<청음·탁음의 창작 와라베우타의 예>

くたくた　つかれた　　くたくたと#
くたくた　　しごとで　　くたくただ#
作文) 仕事で　疲れて　くたくたです。

くだくだ　もんくを　くだくだと#
くだくだ　こぼして　くだくだと#
作文)文句を　くだくだと　こぼしている。

<청음·탁음의 대조연습의 예>
てんき(天気) / でんき(電気), また / まだ, あける / あげる, さっし(冊子) / ざっし(雑誌)

<청음·탁음의 문장연습의 예>
A：てんきとでんき、違いが難しいですね。
B：そうですね。てんきはてんき、でんきはでんきですよね。
A：てんきはてんき、でんきはでんき、大丈夫ですか。
B：大丈夫ですよ。 / うん。ちょっと違いますね。

4.2.4 악센트

악센트 오류로 인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자 한다.

「それを着てください」と言われたので、はさみで切ったら、「切るんじゃなくて着るんすよ！」と言われてもっと分からなくなった。

앞의 의식결과를 보면 악센트는 초급 학습자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고급학습자들에게 있어 어려운 항목 중의 하나이다. 위의 예와 같이 '着る'는 악센트의 핵이 없는 평판형이고, '切る'는 첫 박에 악센트 핵이 있는 두고형이다. 중·고급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악센트의 학습은 학습초기부터 습득하는 항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본어 학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중급이상이 되면 일본인과의 회화 등을 통해 자신의 악센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느 정도 학습이 이루어진 중급이상의 학습자의 악센트 습득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일본어 악센트의 형태별로 학습자들의 오류현상을 살펴본 뒤 신체리듬운동과 와라베우타리듬을 통해 실천지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일본어 악센트의 듣기지도는 로패스필터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11].

11) 필자의 박사논문에서는 한국인 일본어학습자들에게 로패스필터를 이용하여 일본어 악센트의 듣기지도를 한 결과 듣기가 많이 향상되었고 그것이 올바른 발음에까지 이르게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1) 두고형[12)]

두고형은 첫 박이 높고 둘째 박부터 낮아지는 형태로 악센트의 핵이 단어의 제일 첫 박에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오류현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けいざいの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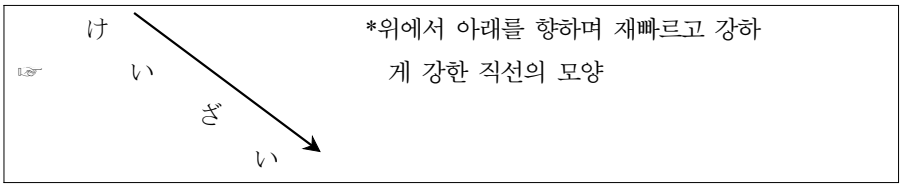
けいざい(経済)→ けいざい, けいざい, けいざい, けいざい

H[13)]LLL HHLL LHHL LHHH LLHH

위의 예와 같이 けいざい(HLLL)의 경우, 'HHLL', 'LHLL', 'LHHH', 'LLHH'의 일본어에서는 없는 형태의 첫 박과 둘째 박이 높고 셋째 박부터 낮아지는 형태와 중고형 또는 평판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오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신체리듬운동을 제안한다. 두고형의 경우 첫 박과 둘째 박의 높이가 다르므로 위에서 아래를 향하며 빠르게 내려가는 직선모양의 팔이나 손가락의 움직임을 이용한다

<두고형의 신체리듬운동의 예>



<두고형의 창작 와라베우타리듬의 예>

かみやは トマトが だいすきで#

HLLL HLLL HLLLL

さとうは レタスが だいきらい#

HLLL HLLL HLLLL

---

12) 본고에서는 일본어의 공통어 악센트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① 일본어의 악센트는 고저(高低)악센트다.
② 1박과 2박의 높이는 다르다.
③ 한 개의 단어 중 한 번 소리가 낮아지면 다시 높아지지 않는다.
④ 공통어 악센트에는 두고형, 중고형, 미고형, 평판형의 4가지 종류가 있다.
⑤ 의문문에서도 악센트형은 바뀌지 않는다.

13) H는 높은 부분, L은 낮은 부분을 나타냄.

作文) 神谷さんはトマトが大好きだし、佐藤さんはレタスが大嫌いです。

신체리듬운동과 와라베우타리듬을 통해 두고형 악센트형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박수별로 연습해 본다. 그리고 문장연습을 통해 실제회화에서도 자연스러운 악센트형을 구사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본다.

<두고형의 연습패턴>
2박 : ねこ　うみ(海)パン
3박 : アニメ　どくしょ(読書)　ゲーム
4박 : けいざい(経済)サッカー
5박 : はなこさん(花子さん)コンサート　ハイキング

<두고형의 문장연습>
A : あの、ねこがすきですか。
B : え、ねこ？
A : はい、ねこです。
B : はい、好きです。ねこはかわいいですからね。
A : そうですね。

2) 산(山)형[14)]

산(山)형에는 중고형과 미고형의 2가지 형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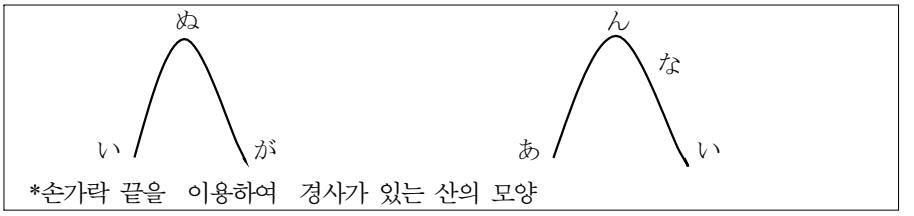
먼저, 중고형은 악센트의 핵이 단어의 중간에 있는 형태이다. 중간이 높고 그 전후는 낮다. 학습자의 중고형의 오류형태를 보면 '두고형(HLLL)', 'HHLL', '평판형(LHHH)' 'LLHH' 등의 오류가 나타났다. 두고형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평판형과 일본어에 없는 형태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あんない(案内) → あんない　あんない　あんない　あんない 등
LHHL　　HLLL　HHLL　LHHH　LLHH

그리고 미고형은 악센트의 핵이 단어의 마지막 박에 있는 형태이다. 첫 박이 낮고 나머지 박은 모두 높으나 조사가 낮게 연결된다.

14) 본고에서는 중고형과 미고형을 산형이라 부르기로 함.

<산형의 신체리듬운동의 예>



손가락 끝과 팔을 이용하여 경사가 있는 산의 모양처럼 신체리듬운동을 도입한다.

<산형의 창작 와라베우타리듬의 예>

あさって　あんない　よろしくね#

LHLL　LHHL　LHHHH#

しんじゅく　あちこち[15]　よろしくね#

LHHH　LHHL　LHHHH#

作文)明後日　新宿のあちこちの案内宜しくね。

신체리듬운동과 창작와라베우타리듬을 통해 어느 정도 산형의 악센트형이 정착이 되면 각 형태별로 연습을 하고 문장연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악센트형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

<중고형의 연습패턴>

① 마지막 박이 낮다.(중고형의 3박어는 전부 이 그룹에 속함)

예) にほん　おかし　おふる　コーヒー　せんせい

② 뒤에서 두 번째의 박이 낮다.

예)くだもの　のみもの　デパート　じてんしゃ　プレゼント

③ 뒤에서 세 번째 박이 낮아진다.

예)カレンダー　でんわばんごう　コンピューター

<중고형의 문장연습>

A：これって、にほんですか。

B：にほん？

A：ええ、にほんですよね。

B：いえ、にほんじゃんありませんよ。これは中国ですよ。

A：え、そうですか。

15) LHLL,LHHL 양쪽 모두 사용.

<미고형의 연습패턴>
1박 : きが(木)
2박 : いぬが(犬が)　はなが(花)
3박 : さしみが(刺身)とおりが(通り)
4박 : いもうとが(妹)おとうとが(弟)

<미고형의 문장연습>
A : あれ、いぬがいる。。。。
B : え、いぬが？
A : うん、あそこにいぬがいるよ。
B : あ、ほんとうだ！いぬがいるね。
A : 隣のいぬかもしれませんね。(평판형이 됨)

3) 평판형

악센트의 핵이 없는 것으로 즉, 첫 박이 낮고 다음 박부터 높은 상태로 연결되는 형태이다. 평판형의 오류를 보면 두고형과 산형처럼 일본어에는 없는 악센트 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오류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おさけ(お酒)→	おさけ	おさけ	おさけ	おさけ	おさけ
LHH	LLH	LHL	HLL	HHL	HHH[16]

평판형의 신체리듬운동은 실천지도 초기 단계에서는 첫 박과 둘째 박의 높이가 다르다는 것을 학습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직선과 빠른 움직임으로 밑에서 위로 향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그리고 중·후기의 단계에서는 첫 박은 낮고 둘째 박부터 부드러운 곡선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평판형을 습득하도록 한다.

<평판형의 신체리듬운동의 예>

실천지도 초기	실천지도 중·후기
け さ お *직선, 빠른 움직임	さ　け お *부드러운 곡선의 움직임

16) 높이가 변화가 없는 형태

<평판형의 창작 와라베우타리듬의 예>
うたえる　あそべる　カラオケで#
LHHH　　LHHH　　LHHHH#
バイトが　はじまる　カラオケで#
LHHH　　LHHH　　LHHHH#
作文)カラオケでバイトが始まる。

<평판형의 연습패턴>
1박 : と「が(戸)
2박 : と「り(鳥)　か「お(顔)
3박 : お「さけ(お酒)　ま「んが(漫画)
4박 : デ「ジカメ　パ「ソコン
5박 : お「このみやき(お好み焼き)　バ「イオリン

<평판형의 문장연습>
A : これま「んがですか?
B : ま「んがですよ。
A : ま「んが?
B : はい、ま「んがです。
A : へえ、ま「んがですかぁ。
B : ちょっとへんなまんがでしょう?

4.2.5 인토네이션

인토네이션의 잘못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단순한 발음의 잘못하고는 다른 오해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 모음, 자음, 박의 길이, 악센트의 위치 등의 잘못은 일반적으로 모어화자에게 '외국인이라서 그런가보다'라고 받아들인다. 그것과 반대로 인토네이션의 잘못은 비 모어화자의 발음상의 문제점으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러한 의도로 발음했다고 오해해서 해석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감정표현을 포함한 인토네이션은 일본어학습자가 습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하며 또한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올바른 인토네이션 습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토네이션의 오류로 인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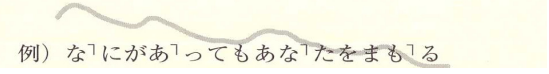
윗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これお願いでしょうか。(↑)」라고 정중하게 물었더니、「ものを頼むときは『お願いでしょうか。(↓)』と言わないと少し失礼に聞こえる」라고 했다.

먼저 학습자에게 일본어의 인토네이션의 규칙[17]에 대해 설명하고 신체리듬운동을 이용하여 실천지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1) 평서문의 인토네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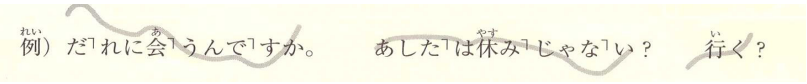
① 일본어의 평서문은 へ자형(히라가나의 「へ」같은 형태로 점점 낮아짐) 인토네이션이다.

② 하나의 문장에 악센트의 핵이 몇 개씩 있는 경우 제일 처음 나오는 핵을 가장 높게하고 점점 낮아지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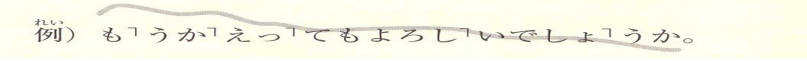


2) 의문형의 인토네이션

① 일본어의 의문형의 인토네이션은 일반적으로 문장 끝이 올라간다.



② 「でしょうか」는 의문의 형태이지만, 문의 끝이 내려간다.



<문장연습의 예 :駅への行き方を聞く, 日本の会社に就職する 등 >

A：あの、すみません。

B：はい、何ですか。

A：駅に行くにはどう行ったらいいでしょうか。

B：駅ですか。

A：はい、道に迷ってしまったです。

B：あの、私も迷ってるで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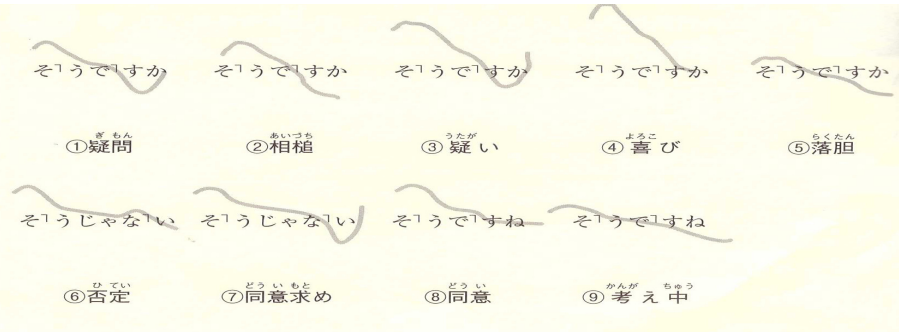
A：ええ、そうなんですか。

17) 磯村 一弘(2009)『音声を教える』国際交流基金, p.105

3) 기분을 전달하는 인토네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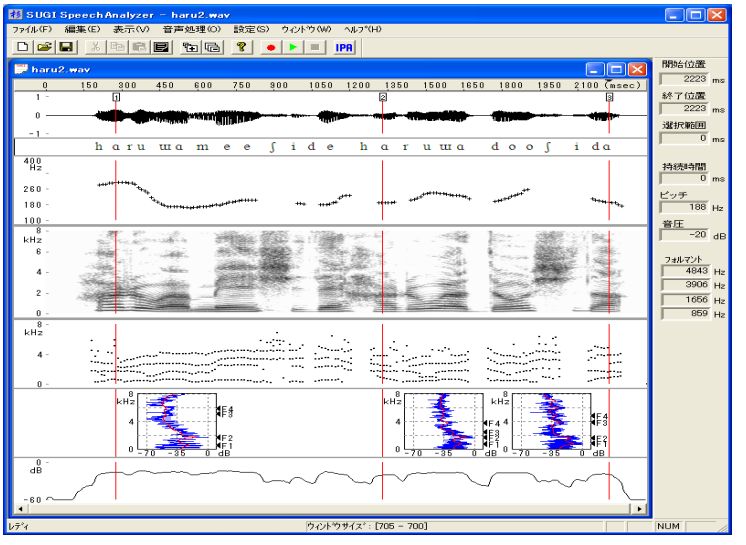
소리의 고저와 속도 등으로 동의, 의심 등의 기분을 나타낼 수 있다.

본고에서는 9가지 패턴으로 나누어 보았다.



인토네이션의 신체리듬운동은 위의 예에서 제시한 인토네이션곡선을 손가락 끝과 팔을 이용하여 실천지도를 제안한다. 기존의 시각적 접근[18]과는 다르게 VT법의 신체리듬운동을 통해 신체의 움직임에 맞게 올바른 발음을 유도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자신이 연습한 인토네이션 리듬을 SUGI Speech Analyzer 음성프로그램의 피치(pitch)곡선을 통해 올바르게 발음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본다.



<그림 2> SUGI Speech Analyzer 음성프로그램을 이용한 자가분석

18) 눈으로 곡선의 움직임을 보고 그대로 따라 발음하는 방법

5. 결론

본고는 VT법이라는 발음지도법을 통해 일본어 학습자들이 알기 쉬운 발음을 익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알기 쉬운 발음의 습득은 중요한 요소이다.

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발음지도를 바라는 학습자의 요구도 고급학습자일수록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의사소통에 있어 중요한 발음에 주목하여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발음연습을 하였다. 학습항목으로는 단음, 리듬, 악센트, 인토네이션이지만 '日本語らしさ'에 관계되는 리듬을 의식해서 연습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또 대조연습을 통하여 각각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문장연습을 통해 일상적인 회화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고를 통하여 일본어학습자와 교사간의 발음교육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바란다. 초급학습자 측면에서는 발음에 대한 의식은 문법・회화・한자 등의 학습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발음학습은 굳이 필요 없다는 의식에서 발음교육을 통해, 자연스러운 회화・문법구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의식전환을 기대한다.

또한, 중상급자 학습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발음에 문제가 있음에도 상당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고치기 힘들다는 의식에서 발음클리닉 프로그램이나 학습을 통해 자기교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는 '지도법을 모른다, 교육할 시간이 없다, 자신의 발음에도 자신이 없다, 어렵다' 등의 발음교육에 대한 의식에서 굳이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아도, 수업시간 처음 또는 마지막에 약간의 시간의 투자를 하여 학습자에게 교육을 한다면 어렵게만 느껴지는 사항이 아닐 것이다. 또한, 대학 등의 일본어 연수기관들도 학습자와 교사들의 일본어 발음교육의 필요성을 통해 커리큘럼을 만든다면, 교사・학습자간의 일본어 교육은 상당히 질적으로 우수해 질 것이다.

【参考文献】

김영란(2013)「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어 발음교육에 대한 의식」『일본문화연구』제47집, pp.99-119
민광준(2002)『일본어 음성학입문』건국대학교 출판부, pp.175-185
浅野涼子(2008)「VT法を活用したプロソディ指導の一例」『名古屋学院大学論集』第2号, pp.12-15
太田健(2003)「VT法を利用した促音の指導ー中国人日本語学習者を中心に」拓殖大学修士論文, pp.19-38
姜蓮華(2009)「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日本語の音声の知覚と生成に関する研究–VT法を中心にー」拓殖大学大学院　博士論文, pp.82-104
磯村 一弘(2009)『音声を教える』国際際交流基金, pp.20-77

木村政康(2010)「わらべうたリズムを活用したアクセントの指導―頭高型のアクセントを中心に―」『言語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拓殖大学言語文化研究, pp.82-85
木村政康(2010)「音声教育法―VT法の理論を応用して―」『言語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拓殖大学文化研究所, pp.53-57
_____(2000)「振動感覚による音声認識」『語学研究』拓殖大学言語文化研究所, pp.19-21
_____(1997)「VT法を使った発音指導の実際」『月刊日本語』2月号 アルク, pp.35-38
_____(1992)「ローパスフィルターによるプロソディの知覚」『拓殖大学論集』拓殖大学研究所, pp.54-55
_____(1987)「言調聴覚論(SystemVerbo-tonal)に基づく外国語の発音」No.9 神奈川大学外国語研究センター, pp.13-15
小坏博子・木村政康・川口義一・安富雄平(2002)『聴覚・言語障害教育および外国語教育のためのVTS入門』グベリ ナ記念ヴェルボトナル普及協会, pp.5-100
谷口聡人(2000)「音声教育の現状と問題点」『シンポジウム日本音声教育』, pp.22-24
崔泰根(2010)「日本語学習者のリズム感覚とその習得研究―VT法から見た自立拍リズム・特殊拍リズムの総合的考察」拓殖大学大学院　博士學位論文, pp.135-147
斎藤明子(1997)「VT法を用いた日本語音声教育の実践報告」兵庫県国際交流協会日本語教師連絡会議VTM研究会, pp.89-90
佐藤友則(1995)「単音と韻律が日本語音声の評価に与える影響力の比較」『世界の日本語教育5』, pp.22-25
増田喜治(2005)「VT法の身体運動と発話」『名古屋学院大学論集』名古屋学院大学総合研究所センター, pp.77-80

논문투고일 : 2015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04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04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4월 20일

<要旨>

일본어학습자를 위한 일본어 발음의 실천지도

－VT법을 중심으로－

본고는 VT법이라는 발음지도법을 통해 일본어 학습자들이 알기 쉬운 발음을 익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알기 쉬운 발음의 습득은 중요한 요소이다.

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발음지도를 바라는 학습자의 요구도 상급학습자일수록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의사소통에 있어 중요한 발음에 주목하여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연습을 하였다.

초급학습자의 경우 촉음, 장음, 발음, 청음·탁음에 맞추어, 중·고급학습자의 경우 악센트와 인토네이션에 맞추어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항목별로 VT법의 지도법을 제안하고 대조연습을 통하여 각각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문장연습을 통해 일상적인 회화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고를 통하여 일본어학습자와 교사간의 발음교육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바란다. 초급 학습자 측면에서는 발음에 대한 의식은 문법・회화・한자 등의 학습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발음학습은 굳이 필요없다는 의식에서 발음교육을 통해, 자연스러운 회화・문법구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의식전환을 기대한다.

또한, 중·고급자 학습자에게는 자신의 발음에 문제가 있음에도 상당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고치기 힘들다는 의식에서 발음클리닉 프로그램이나 학습을 통해 자기교정을 할 수 있다는 의식전환을 바란다.

Action instruction of Japanese pronunciation for Japanese learners

－around VT method－

This paper, it is an object using the pronunciation teaching methods of that VT method is wearing a pronunciation that easy to understand the Japanese learners. For harmonious communication, learning of easy-to-understand pronunciation is an important element. Also, are the higher the senior learners need overlooking the systematic and effective pronunciation guidance. In this paper, we performed practice by focusing on important pronunciation in communication through the learner's awareness survey. In the case of beginner learners, we focused on the double consonants, pronunciation, listening, voiced sound and the case of medium-high level learners, we presented a guidance plan to match the accent and intonation. Proposed the teaching of VT method for each and understand each difference through the practices. Become more comfortable, It could be able to used even in everyday conversation through the practice of the sentence.

Also to the medium-high level learners, I hope the consciousness transformation from it is hard to repair their pronunciation problem since a considerable time has passed to they can perform self-calibration through a program of pronunciation clinic or learning.